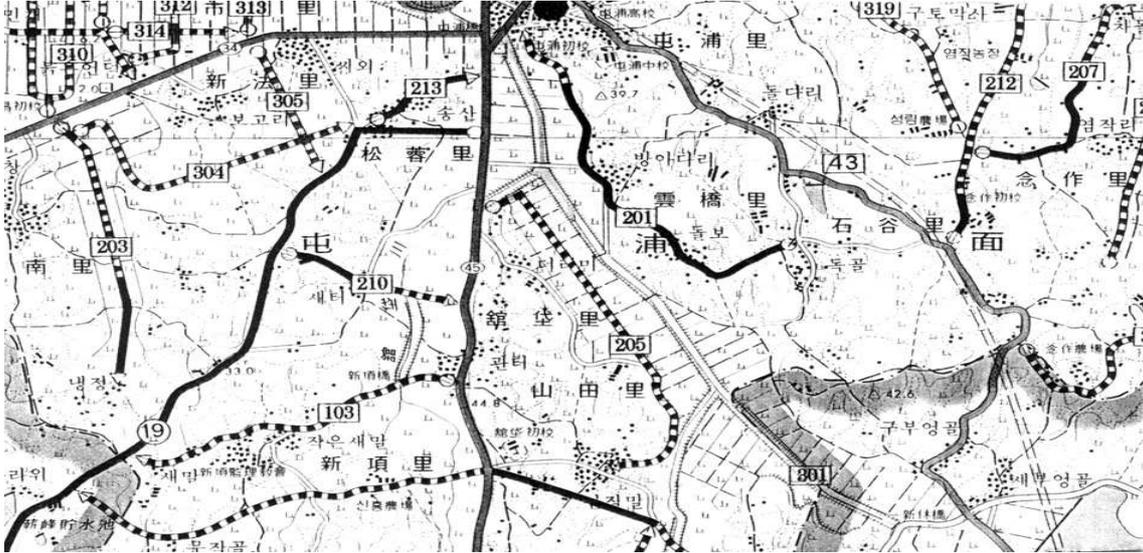


산전리·山田里

둔포면의 한 마을로 산직말, 건너말, 조개티, 학교말이라는 작은 네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83명의 주민과 132가구로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하였다가 산직리, 합산리를 병합하여 산전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산전리 위치도>



☒ 산직말 마을

산전리는 산직말, 건너말, 조개티, 학교말이라고 하는데 흔히 산직말로 알려졌다. 옛날에는 정감사(지금의 군수격)의 묘를 관리하는 산직들이 많이 살아서 산직촌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조사당시 산전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산직말 마을은 위도 36-53-30, 경도 127-02-5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옛 목관과 돌칼, 구리칼등이 나왔다고 한다.

2) 현황

산직말 마을의 인구수는 483명으로 남자 250명, 여자 233명으로 132가구가 살고 있다. 주

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산직말 마을	483명	250명	233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기타
산직말 마을	100%	75%	-	-	-	-	25%

산직말 마을은 논 81ha, 밭 29ha로 경작지면적이 110ha로 둔포면에서 3번째로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 영농기계도 경운기 51대, 트랙터 30대 등 많은 영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엠프와 사물놀이악기가 구비된 마을회관과 마을주민의 정서를 함양시켜주는 마을문고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산직말 마을	110ha	81ha	29ha

- 농기계 보유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건조기	콤바인
산직말 마을	51대	30대	40대	2대	-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사물놀이악기	마을문고
산직말 마을	1개소	1개	-	1조	1개소

산직말 마을은 이씨와 김씨, 그리고 주씨들이 80% 이상이 살고 있고, 40대부터 60대까지 40%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 연령별 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이상
산직말마을	20명	70명	20명	35명	68명	80명	72명	30명	8명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주씨	기타
산직말 마을	100%	28%	37%	21%	14%

- 학생 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산직말 마을	25명	20명	25명	5명
--------	-----	-----	-----	----

－ 최고령자

산직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89세의 고창수씨이다.

－ 호당평균 소득은 년 / 약 7,500만원이다.

3) 자연경관

산직말 마을 입구에서 보았을 산직말 건너쪽으로 건너말이 있고, 동쪽으로는 모양이 조개처럼 생겼다하는 조개티가 있다. 서쪽 남산 바위 위쪽에 관대초등학교가 있다. 산전리 뒤에는 남산이 있으며, 이 산을 배경으로 작은 마을들이 모여 있다. 마을 어귀에는 논, 밭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형태이다.

4) 마을의 변천과정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산직리, 합산리를 병합하여 산전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산직말 장고개에서 과수원을 정리하다가 돌도끼와 구리칼의 발견으로 마을의 형성년대를 구석기에서 신석기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터를 잡은 성씨는 한산 이씨로 그들의 시조가 한양(지금의 서울)서 벼슬을 하다 당과 싸움이 지겨워 이곳에 내려와 살았다고 전해온다. 한산 이씨 시조가 지금의 산직말에 터를 잡았으며, 지금은 김씨와 이씨, 주씨가 주를 이루며 살고 있고, 1950년대 해방후부터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6) 지 명

- 산직말 : 산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정감사의 산직집이 있었다.
- 건너말 : 산직말 건너쪽에 있는 마을.
- 조개티 : 산직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모양이 조개처럼 생겼다 함.
- 학교말 : 산직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현재 관대초등학교가 있다.
- 남 산 : 학교말 남쪽에 있는 작은 산.
- 가랫들 : 산직말 동쪽에 있는 들
- 쌈갓(바가지쌈) : 산직말 북동쪽에 있는 들로서 큰 쌈이 있다.
- 서핏골 : 오리장 아래쪽에 있는 들. 예전에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 오리장 : 산직말 앞에 있는 들. 오리나무 정자가 있다.
- 왕경들 : 산직말 동쪽에 있는 들.
- 강곶벌 : 조개티 북쪽에 있는 곶짜기
- 개미실 : 산직말 서쪽에 있는 곶짜기
- 번갯골 : 산직말 남쪽에 있는 곶짜기
- 장고개 : 산직말 남서쪽에 있는 곶짜기. 1966년4월에 과수원을 정리하다가 돌도끼, 구리칼 등 석기시대의 유물이 나왔다.
- 오리나무들 : 산직말 동구에 있는 들로서 오리나무 정자가 있는 곳이다.

7) 전 설

별다른 전설이 전해 내려 오고 있지는 않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

산직말 마을은 명절날마다 줄다리기를 하고, 10월말일에는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이 과일과 떡을 차려놓고 동네 평안을 비는 당제를 지내며, 이때 각 집집마다 호주들의 평안을 비는 소지를 올린다고 한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전해 내려 오고 있지는 않다.

10) 종교단체

기독교-제일감리교회 (22)

11) 공장현황

산직말 마을에는 에어컨 유니트쿨러를 생산하는 덕성냉열기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평산공업이 있다.

·덕성냉열기-산전48-18, 허가일 95.03.03, 면적 11,825, 종업원수 9

에어콘 유니트쿨러

·평산공업-산전170-1, 허가일 87.03.17, 면적 9,917, 종업원수 162

자동차부품 제조업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많은 산과 밭으로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전형적인 농민의 마음을 소유한 것처럼 매우 소박하고 친절하다. 산직마을은 경로당 준공이나 하수도 정비, 마을 간선도로 확장 등 각종사업을 벌여 마을을 꾸준히 발전 시키고 있다.